



미국 증시,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지표 개선 등으로 강세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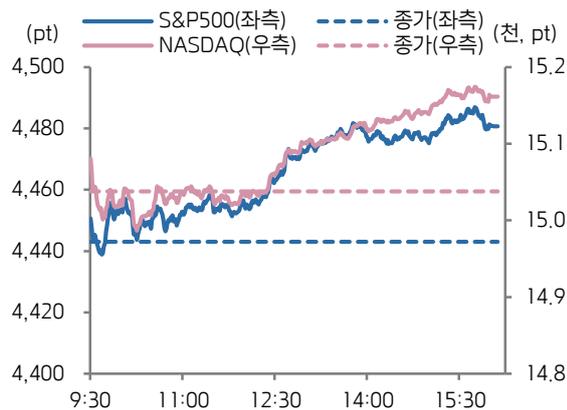
9월 15일 (수) 미국 증시는 최근 연이은 하락에 대한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, 양호한 산업생산 및 뉴욕 제조업 지표, 국제 유가 급등, MS(+1.7%)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. (S&P500 +0.85%, 나스닥 +0.82%, 다우 +0.68%, 러셀 2000 +1.11%)

S&P500 지수는 5 거래일만에 상승. 일부 경제지표 개선으로 경기민감주 중심 반등이 보였지만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을 지속. 하지만 S&P500의 50일 이동평균선은 4,432pt에 가까워지자 반등이 나오며 지수는 애플, 알파벳 등 주가 상승 전환하는 등 기술적 요인도 미국 증시 강세에 기여.

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실물지표 부진 이후 이날 미국 실물지표 일부가 발표됨.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었음. 미국 8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.4% 증가하며 예상치에 부합.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0.2% 증가하며 예상(+0.4%)을 소폭 하회. 전월 쇼크를 기록했던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는 34.3pt로 발표하면서 예상치(18pt)과 전월(18.3pt)를 큰 폭 상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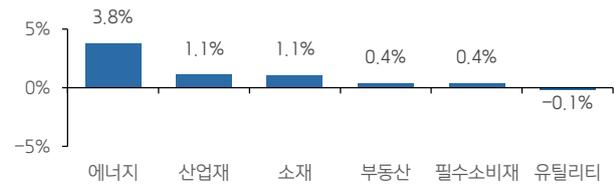
업종별로 이날 유가 3% 이상 급등에 힘입어 에너지(+3.8%)가 가장 돋보였음. 이외 산업재(+1.1%), 소재(+1.1%), 금융(+0.9%), IT(+0.9%) 업종의 상승폭이 컸음. 이날 유틸리티(-0.2%) 업종이 유일하게 하락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특징주

마이크로소프트(+1.7%): 전일 최대 600 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로 급등. 이번 자사주 계획은 2019년 9월에 발표한 400억 규모를 상회. 분기 배당금도 전분기 대비 10.7% 증가한 0.62달러 발표.

골드만삭스(-0.4%): 이날 금융(+0.9%) 섹터의 강세를 보였지만 GS 주가는 그린스카이(+53.2%)를 주당 12.1달러로 22.4억 달러 규모 인수 딜 발표로 소폭 하락.

원리조트(-6.3%): 중국 정부의 마카오 카지노법 수정안 내용에 따라 마카오 카지노 관련주 급락 지속. 45일 동안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 규제를 확대 할지 결정할 계획. 아시아 증시에서도 샌즈차이나 등 급락.

레제네론(+1.1%): 미국 정부의 코로나 19 치료제 140만개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하며 총 구입량이 300만 기록.

모더나(+1.6%):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백신들의 효과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 발표. 이는 코로나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시사.

염차이나(-5.9%): 당사는 중국 코로나 19 확산으로 3분기 영업이익의 50~60% 피해가 있을 것으로 발표. 8월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섯다운에 들어간 식당 수가 500개가 넘었다고 언급.

엑손모빌(+3.4%), 쉘(+2.1%), 코노코필립스(+4.2%), EOG 리소스(+8.3%): 유가 장중 3% 이상 상승. EIA 원유재고 6,422만 배럴 감소(예상치 3,544만 배럴 감소)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480.70	+0.85%	USD/KRW	1,170.49	-0.02%
NASDAQ	15,161.53	+0.82%	달러 지수	92.49	-0.14%
다우	34,814.39	+0.68%	EUR/USD	1.18	-0.01%
VIX	18.18	-6.58%	USD/CNH	6.43	+0%
러셀 2000	2,234.45	+1.11%	USD/JPY	109.36	-0.02%
필라. 반도체	3,465.76	+0.47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4,420.33	+0.94%	국고채 3년	1.492	-4.8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2.027	-3.5bp
Eurostoxx50	4,145.94	-1.09%	미국 국채 2년	0.211	+0.4bp
MSCI 전세계 지수	735.17	-0.33%	미국 국채 10년	1.299	+1.5bp
MSCI DM 지수	3,116.08	-0.32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296.15	-0.41%	WTI	72.58	+3.01%
MSCI 한국 ETF	85.21	+1.01%	금	1794.8	-0.68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1.01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0.02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1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66.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차주 장기 연휴를 앞두고 시장참여자들의 관망심리 심화 가능성 2. 반도체, 자동차 등 수출 대형주들의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 3.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관련 에너지 업종들의 주가 변화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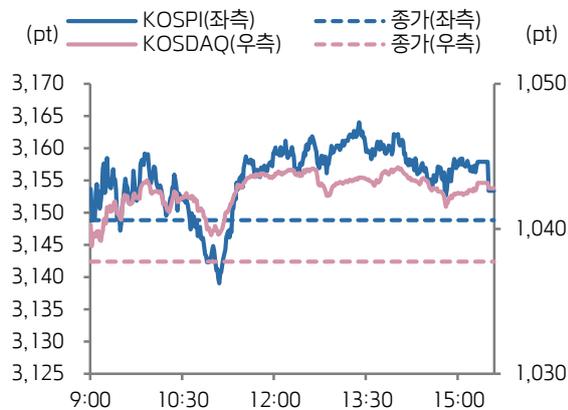
최근 골드만삭스에 이어 전거래일 JP 모건에서도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(7%→5%)를 하향하는 등 미국 경기 피크아웃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는 모습. 이 같은 성장 전망 하향은 델타 변이 확산, 공급차질에서 주로 기인하며, 이는 현재 증시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하방압력을 가해왔던 재료가기 때문에 추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.

미국의 8월 산업생산(0.4%MoM, 예상 0.5%)이 다소 부진했지만, 허리케인 아이다 강타에 따른 일시적인 생산차질 여파를 감안 시 미국의 산업 경기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 전거래일 아시아 증시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8월 소매판매(2.5%YoY, 예상 6.3%)가 대폭 쇼크를 기록했으나, 이는 공동부유, 빈부격차 해소를 정책 어젠다로 설정한 중국 정부의 연내 추가 부양 의지를 강화시키는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.

여전히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, 금일 한국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. 다만 장 마감 후 발표 예정인 미국의 8월 소매판매 및 장기 연휴를 앞둔 관망심리가 짙어질 것임을 감안 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.

또한 9월 FOMC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존함을 감안 시 금주 남은 2거래일 동안에 국내 증시 비중을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. 그러나 생각해볼 점은 9월 이후 외국인 수급 여건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으며, 해당 대형주들의 3분기 이후 실적기대감도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 시 차주 장기 연휴 돌입 전 국내 증시의 비중 축소보다는 보유 스탠스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.

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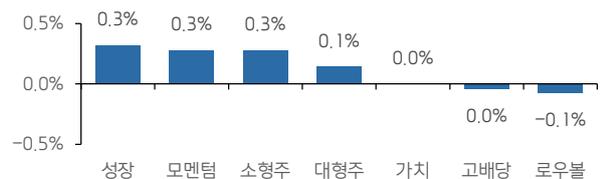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승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